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우울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오 현 아¹⁾ · 박 영 례²⁾ · 최 미 혜³⁾

- 1) 대원과학대학 시간강사
- 2) 목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
- 3)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Abstract =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Depression on Suicide Ideation

Oh, Hyun-A¹⁾ · Park, Young-Rye²⁾ · Choi, Mi-Hye³⁾

- 1) *Part-time Instructor, Dept. of Nursing, Daewon Science Collage*
- 2) *Department of Nursing, Mokpo Catholic University,*
- 3) *Department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depression on suicide ideation in the adolescent population. **Method:** The participants for this study were 391 students from two middle schools, one located in Seoul and one in Kyung-gi do Province. A self-report survey was used for data collection, which was carried out from February 8 to 14, 2006.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1.0 Program. **Results:** The average score for father-adolescent communication was 61.70, and for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64.04. The average score for depression was 16.01, and for suicide ideation, 8.69.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uicide ideation and depression.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verse correlation between suicide ideation and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and between suicide ideation and father-adolescent communication.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and depression account for 46.4% of variance in suicide ideation of adolescents. **Conclusion:** According to the results, programs designed to improv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decrease depression should be developed and put into practice to decrease the rate of suicide ideation in adolescents in Korea.

Key words : Adolescent, Suicide ideation, Communication, Depression

주요어 : 청소년, 자살생각, 의사소통, 우울

교신저자 : 최미혜(E-mail: mihye@cau.ac.kr)

투고일: 2007년 11월 22일 심사완료일: 2008년 1월 21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Choi, Mi-Hye(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ungang University

221, Heuksukdong, Dongjakgu, Seoul 156-756, Korea

Tel: 82-2-820-5689 Fax: 82-2-824-7961 E-mail: mihye@cau.ac.kr

서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편이며 자살하는 연령층도 다양하여 청소년, 청장년, 노인 등 연령에 따른 자살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지난 몇 년간 청소년 사망의 주요 원인들 중 자살은 교통사고 다음으로 2위에 기록되어(Kim, 2006) 그 중요성과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청소년 상담원(2005)에서 전국의 3천 117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6.0%의 상당수 청소년이 자살을 충동적으로 생각해 보았으며,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생각한 경우는 13.9%이었고, 6.4%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 본 것으로 드러났고 처음으로 자살하고 싶다고 생각한 때가 중학교 때가 51.2%로 가장 많았다.

청소년에게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자살이 증가한다는 것은 한 개인 차원의 죽음만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를 내포한다. 더욱이 2000년 이후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10~14세 청소년의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면서(KNSO, 2006),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가야 할 청소년층의 붕괴를 더욱 조장할 뿐만 아니라 이를 국가, 사회, 경제, 정신건강측면에서 매우 심각하다. 또한 청소년기의 자살생각은 자살시도나 자살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무의식중에 잠복되어 성장과정을 통해 언제든지 표출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 자살은 청소년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 연령층의 자살문제와 밀접히 연관될 수 있으므로 청소년기의 자살 예방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에게 자살생각이 빈번한 이유는 발달단계의 특성 상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측면에서 아동에서 성인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인 단계로서 자아의식의 발달과 부모로부터의 독립, 억제된 환경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Chung, Ahn, & Kim, 2003), 완성되지 않은 가치관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동시에 주변의 환경적 요인들이 청소년의 정신적인 방향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사회문화의 흐름이 빠르게 변화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이 다양해지면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족의 지지체계의 변화, 그리고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욕구 증가는 더욱 더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단절을 심화시켰고, 이러한 가정의 분위기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자살생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Kim, 2004; Jeong, 2005; Lee, 2002).

청소년은 가정 이외에도 학교, 대중매체, 사이버환경 등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 여러 형태의 생활사

건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스트레스는 청소년 우울을 급증시키고 있다.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하여 우울은 상당한 연관성이 있으며(Park & Shin, 1990; Chung, et. al, 2003), 과거와 달리 주변 환경과 연관되어 유발된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은 상당수의 청소년이 자살을 시도했거나 지속적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에게 많이 발견되고 있다. 우울로 인해 모두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살 시도자를 정신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극적인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Blumenthal & Kupfer, 1990).

이상에서와 같이 청소년의 자살은 개인 및 가족과 사회적 측면에서 그 심각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정서적 요인으로서의 우울과 환경적 요인으로서의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자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는 많이 수행되어 왔으나 대부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Hong, 1998; Lee, 2002; Seo, 2005),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 자살시도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중학생들의 자살생각과 부모-자녀의사소통과 우울을 변인으로 하여 자살예방 및 자살과 관련된 위기관리 프로그램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요인으로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우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우울 및 자살생각을 확인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우울 및 자살 생각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우울 및 자살생각과의 상관성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우울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2개 남녀공학 중학교의 학생 412명이었고, 이 중 기술내용이 미흡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23부를 제외한 391부를 연구의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연구 도구

● 자살 생각

자살생각은 자살하기 위한 바람, 상상 또는 계획으로 자살 시도에 앞서는 과정이고 자살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생각을 말한다(White, 1989).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Beck, Kovacs과 Weissman(1979)의 Scale for Suicide Ideation (SSI)을 Park과 Shin(1990)이 가능한 한 원래의 문항에 충실하게 변형한 자기보고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SSI는 총 19문항으로 각 문항은 0-2점까지 채점되며 총점은 최소 0에서 최대 38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Park과 Shin(1990)의 연구에서 신뢰도 Chronbach α 는 .89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hronbach α 는 .86이었다.

● 부모-자녀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인간의 감정, 느낌, 태도, 생각 등의 메시지를 언어적, 비언어적수단을 통하여 상호간의 행동에 주고받는 때 개체이며 가족의 변화하는 욕구와 감정을 공유하는 유용한 기제를 말한다(Olson, Sprenkle, & Russell, 1982).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Barnes와 Olson(1982)이 개발한 부모와 의 의사소통 척도(PACI: Parent 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중 Min(1990)이 변안한 청소년 자녀용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부-자녀 간 의사소통 20문항과 모-자녀 간 의사소통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개방적인 의사소통 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배점하였고 역기능적 의사소통 문항은 역산하였다. 의사소통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역기능적이고 폐쇄적임을 의미한다.

Min(1990)의 연구에서는 부-자녀 의사소통의 신뢰도는 Chronbach α 는 .86이며, 모-자녀 의사소통의 신뢰도는 Chronbach α 는 .85이었다. 본 연구에서 부-자녀 의사소통의 신뢰도는 Chronbach α 는 .85이고 모-자녀 의사소통의 신뢰도는 Chronbach α 는 .84였다.

● 우울

우울은 슬픈 감정, 외로움의 정서적 증상과 죄의식, 무가치함, 사고력 및 주의력 저하, 자살에 대한 생각과 같은 인지적 증상, 불면증, 식욕감퇴, 체중감소, 피로감 등의 생리적 증상을 포함하는 일련의 심리 상태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Kovacs(1981)가 개발하고 Han(1993)이 변안한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CDI)를 사용하였다. CDI는 12~17세 범 위까지 사용 가능하며 우울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0점에서 2점으로 산출하여 총점의 범위는 최소 0점에서 최대 5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총 27문항의 우울척도는 5개의 하위 영역으로 나뉘는 데 우울정서 5문항, 행동장애 7문항, 흥미상실 7문항, 자기 비하 4문항, 생리적 증상 4문항이다.

Han(1993)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hronbach α 는 .81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hronbach α 는 .81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학교장의 허락을 얻고 교사에게 연구의 취지, 설문지 내용 및 기재요령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며 학생들의 동의를 얻은 후 협조를 구한 다음 진행하였다.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설문지 작성 요령을 설명한 후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설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25~30분이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06년 2월 9일부터 2월 14일까지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1.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등의 기술 통계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우울 및 자살생각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 편차 등의 기술 통계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자녀 의사소통, 우울 및 자살생각의 정도는 t-test와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 검증은 Tukey, Dunnett's T3test를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자살생각과 제 변수와의 관계는 피어슨의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상관관계를 검정하였다.
- 대상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단계적 변수 선택방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으로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55.8%로 남학생보다 많았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이 39.9%로 가장 많았고, 65.7%의 청소년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대상자의 47.8%가 '6명 이상의 친구가 있다'고 한 반면 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N=391)

Variables	Classification	Frequency(%)
Gender	Male	173(44.2)
	Female	218(55.8)
Grade	7th grade	156(39.9)
	8th grade	103(26.3)
	9th grade	132(33.8)
Religion	Yes	257(65.7)
	No	134(34.3)
Number of friends	None	6(1.5)
	1~2	23(5.9)
	3~4	109(27.9)
	5~6	66(16.9)
	6~	187(47.8)
Opposite sex friends	Have	38(9.7)
	None	250(63.9)
	Before	103(26.4)
School record	High ranking	130(33.2)
	Moderate ranking	137(35.0)
	Low ranking	124(31.8)
School life	Satisfy	158(40.4)
	Moderate	181(46.3)
	Unsatisfy	52(13.3)
Economic status	High	98(25.1)
	Moderate	241(61.6)
	Low	52(13.3)
Level of fa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or less	36(9.3)
	High school	206(52.6)
	University or above	149(38.1)
Level of mo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or less	36(9.3)
	High school	257(65.6)
	University or above	98(25.1)
Occupation of father	Regular occupation	148(37.9)
	Irregular occupation	238(60.8)
	Inoccupation	5(1.3)
Occupation of mother	Regular occupation	78(19.9)
	Irregular occupation	147(37.6)
	Inoccupation	166(42.5)
Parental living arrangement	Both biological parents	365(93.4)
	Real father stepmother	3(0.8)
	Real mother stepfather	3(0.8)
	Only mother	10(2.5)
	Only father	10(2.5)
Others	4(1.0)	
Communication time with parents	~10min	51(13.0)
	10~30min	126(32.2)
	30~50min	104(26.6)
	50min~	110(28.2)

성 친구는 63.9%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성적은 중위권이 35.0%, 학교생활면에서는 보통이 46.3%, 가정경제는 중이 61.6%로 가장 높았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고졸이 각각 52.6%, 65.6%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직업은 비정규직이 60.8%, 어머니의 직업은 무직이 42.5%로 가장 많았으며,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부모님 모두와 동거하고 있었으나 하루 중 부모님과의 대화시간이 50분 이상인 경우는 28.2%에 불과하였다.

대상자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우울 및 자살생각의 정도

대상자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우울 및 자살생각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부-자녀간의 의사소통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 중 61.70점이었고, 모-자녀간의 의사소통 평균점수는 64.04점이었다. 우울 평균점수는 54점 만점 중 16.01점이었고, 하부영역 중 흥미상실이 4.71로 가장 높았으며 행동장애 3.83, 우울정서 2.80, 자기혐오 2.44, 생리적 증상 2.23순이었다.

자살생각 평균점수는 38점 만점 중 8.69점이었다.

<Table 2> Scores for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depression, suicide ideation (N=391)

Variables	Classification	Min	Max	M	S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ther-adolescent	26.00	90.00	61.70	10.86
	Mother-adolescent	21.00	93.00	64.04	10.70
Depression		.00	42.00	16.01	7.02
	Depressive mood	.00	9.00	2.80	1.82
	Behavioral disorder	.00	14.00	3.83	2.24
	Loss of interest	.00	13.00	4.71	2.25
	Self-hatred	.00	8.00	2.44	1.56
Suicide ideation	Physical symptom	.00	7.00	2.23	1.64
		.00	34.00	8.69	6.19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우울, 자살생각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우울, 자살생각에 대한 평균값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부-자녀 의사소통의 차이분석에서 학년별, 경제상태, 아버지의 직업, 부모님과의 대화시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학년별로는 2학년이 1학년과 3학년보다(F=3.241, p<.05) 부-자녀 의사소통이 높았고, 경제상태가 상위집단으로 갈수록(F=5.060, p<.01) 부-자녀 의사소통이 높았다. 아버지의 직업이 있는 경우가(F=4.296, p<.05) 무직에 비해 부-자녀 의사소통이 높았고, 부

<Table 3> An analysis of differences i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depression, suicide idea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391)

Variables	Classification	Father-adolescent communication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Depression		Suicide ideation	
		M±SD	t/F	M±SD	t/F	M±SD	t/F	M±SD	t/F
			post doc		post doc		post doc		post doc
Gender	Male	62.65±10.31	1.496	64.55± 9.46	.805	16.21± 6.50	.490	7.95± 5.53	-2.053*
	Female	60.96±11.25		63.64±11.56		15.85± 7.43		9.26± 6.62	
Grade	7th grade ^a	61.92±10.88	3.241*	64.13±11.19	3.137*	15.66± 7.18	6.784**	8.81± 5.90	10.475**
	8th grade ^b	63.58± 9.89	b>a>c‡	65.97± 9.87	b>a>c‡	14.38± 5.42	c>a>b†	6.59± 4.60	c>a>b†
	9th grade ^c	59.94±11.40		62.39±10.54		17.76± 7.64		10.26± 7.16	
Religion	Yes	61.72±11.01	-.023	63.89±10.60	-.685	15.79± 6.85	-.840	8.44± 6.31	-.961
	No	61.75±10.61		64.68±10.21		16.44± 7.36		9.08± 5.87	
Number of friends	None ^a	58.83± 3.97	1.872	60.00± 4.47	1.860	21.60± 8.67	1.845	12.00± 7.18	2.686*
	1~2 ^b	57.21± 9.92		58.81±12.00		17.86± 6.63		11.92± 7.21	a,b>d,e‡
	3~4 ^c	61.60±10.05		63.70±10.64		16.65± 7.07		9.05± 6.35	
	5~6 ^d	64.07±10.90		65.45±10.76		15.03± 6.79		7.79± 5.75	
	6~ ^e	61.51±11.52		64.42±10.55		15.60± 7.03		8.25± 5.96	
School record	High ranking ^a	61.69± 9.71	.213	63.44±10.49	1.878	15.05± 7.08	4.570**	8.13± 6.15	11.130**
	Moderate ranking ^b	62.05±11.04		65.45±10.18		15.51± 6.28	a,b<c‡	7.40± 4.71	a,b<c‡
	Low ranking ^c	61.15±11.87		62.99±11.40		17.63± 7.52		10.86± 7.19	
School life	Satisfy ^a	62.13±11.92	2.670	65.45±11.48	5.072**	14.85± 6.84	8.166**	8.30± 6.39	2.609
	Moderate ^b	62.30±10.06		63.99± 9.34	a>c†	16.02± 6.91	a,b<c‡	8.48± 5.86	
	Unsatisfy ^c	58.48±10.01		59.89±11.79		19.53± 7.08		10.50± 6.58	
Economic status	High ^a	63.48±10.80	5.060**	64.98±10.69	4.599*	14.80± 7.38	5.867**	7.89± 6.65	3.748*
	Moderate ^b	61.88±10.56	a>b>c‡	64.73±10.19	a>b>c‡	15.85± 6.84	c>b>a‡	8.48± 5.87	c>b>a‡
	Low	57.43±11.73		59.97±10.68		19.00± 6.56		10.79± 6.21	
Occupation of father	Regular occupation ^a	62.95±10.66	4.296*	66.15±10.69	5.603**	15.37± 6.91	2.413	7.39± 5.15	6.634**
	Irregular occupation ^b	61.19±10.82	a,b>c‡	62.89±10.46	a,b>c‡	16.24± 6.89		9.33± 6.46	a,b<c‡
	Inoccupation ^c	46.33±10.50		53.00±14.79		22.50±13.47		15.00±13.61	
Occupation of mother	Regular occupation ^a	61.19±10.65	2.541	65.58±10.17	1.096	15.46± 6.80	.298	7.91± 5.00	.951
	Irregular occupation ^b	60.36±11.27		63.35±10.75		16.24± 6.27		9.11± 5.58	
	Inoccupation ^c	63.15±10.50		64.01±10.83		16.04± 7.68		8.69± 7.14	
Parental living arrangement	Both biological parent ^a	61.86±10.71	1.966	64.16±10.51	1.689	15.73± 6.81	2.997*	8.61± 6.03	3.892**
	Real father stepmother ^b	49.66±23.67		49.00±22.51		29.00±17.32	b>a‡	23.66±17.89	b>a†
	Real mother stepfather ^c	69.00±2.64		68.00± 7.07		17.33± 3.51		9.33± 6.65	
	Only mother ^d	65.14±13.86		67.10±13.37		17.55± 6.91		6.80± 4.23	
	Only father ^e	58.80± 7.02		62.00± 6.95		17.44± 8.67		8.00± 4.37	
	Others ^f	52.00±13.29		58.50± 9.67		22.00± 4.24		10.00± 2.00	
Communication time with parents	~10min ^a	54.23±11.49	15.120**	60.10±11.70	13.548**	18.96± 9.00	4.765**	12.54± 7.81	7.482**
	10~30min ^b	59.92± 9.88	a,b<c<d‡	60.51± 9.88	a,b<c,d‡	16.34± 6.48	a>c,d†	8.36± 5.45	a,b,c>d‡
	30~50min ^c	63.09±10.00		66.47± 9.57		15.62± 5.84		8.19± 5.66	
	50min~ ^d	65.68±10.51		67.78±10.41		14.52± 7.19		7.88± 6.15	

*p<.05, **p<.01, † Dunnett's T3 test, ‡ Tukey test

모담과의 대화시간이 길수록(F=15.120, p<.01) 부-자녀 의사소통이 높았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모-자녀 의사소통의 차이분석에서 학년별, 학교생활, 경제상태, 아버지의 직업, 부모담과의 대화시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학년별로는 2학년이 1학년과 3학년에 비해(F=3.137, p<.05) 의사소통이 높게 나타났고, 학교생활을 만족할수록(F=5.072, p<.01) 모-자녀 의사소통이 높았다. 경제상태가 상위집단으로 갈수록(F=4.599, p<.05) 모-자녀 의사소통이 높았으며, 아버지의 직업이 있는

경우가(F=5.603, p<.01) 무직에 비해 모-자녀 의사소통이 높았고, 부모담과의 대화시간이 길수록(F=13.548, p<.01) 모-자녀 의사소통이 높았다.

우울과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학년별, 학교성적, 학교생활, 경제상태, 부모담과의 동거형태, 부모담과의 대화시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년별로는 3학년이 1, 2학년에 비해(F=6.784, p<.01) 우울이 가장 높았다. 성적에서는 하위 집단일수록(F=4.570, p<.01),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할수록(F=8.166, p<.01), 경제상태가 하

위집단일수록(F=5.867, p<.01) 우울이 높았다. 동거형태에서는 부모님 모두 함께 동거하는 집단이(F=2.997, p<.05), 그리고 부모님과 대화시간이 길수록(F=4.765, p<.01) 우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과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 학년별, 친구수, 학교성적, 경제상태, 어머니 직업, 부모님과 동거형태, 부모님과 대화시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t=-2.053, p<.05)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별로는 3학년이 1학년과 2학년에 비해(F=10.475, p<.01) 자살생각이 높았다. 친구수가 적을수록(F=2.686, p<.05), 성적이 하위권집단일수록(F=11.130, p<.01), 경제상태가 하위집단일수록(F=3.748, p<.05), 아버지가 직업이 없는 경우(F=6.634, p<.01)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 동거여부에서는 친부계모인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F=3.892, p<.01) 자살생각이 월등히 높았고, 부모님과 대화시간이 짧을수록(F=7.482, p<.01)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우울과 자살생각과의 상관성

대상자가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자녀 의사소통과 모-자녀 의사소통(r=.690, p<.01), 자살생각과 우울(r=.677, p<.01)이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자녀 의사소통과 우울(r=-.255, p<.01), 모-자녀 의사소통과 우울(r=-.289, p<.01), 부-자녀 의사소통과 자살생각(r=-.292, p<.01), 모-자녀 의사소통과 자살생각(r=-.320, p<.01) 간에는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대상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살생각과의 단변량 분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성별, 학년, 친구수, 학교성적, 경제상태, 부직업, 부모와의 동거여부, 부모와의 대화시간과 부-자녀 의사소통, 모-자녀 의사소통, 우울을 독립변수로 하고 자살생각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그 결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우울로 44.7%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모-자녀 의사소통이 추가 되었을 때는 46.4%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우울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자살생각의 평균 점수는 8.69점으로 이를 백분위로 환산하여 보면 평균 28.9점으로 본 연구 대상자들의 자살생각은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같은 도구를 사용한 Lee(2005)의 연구에 나타난 중학생의 자살생각 18.6점보다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자살생각을 하는 연령층이 저하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부-자녀 의사소통이 평균 61.70점이고, 모-자녀 의사소통은 64.04점으로 대체적으로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개방형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으며 이런 결과는 청소년 자녀가 어머니에게 더 개방적 의사소통을 한다는 선행 연구들(Chang, 1999; Lee, 2005)과 일치하였다. 우울의 평균 점수는 16.01점으로 이를 백분위로 환산하여 보면 평균 29.6점이므로 우울 경향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우울과 자살생각에 대한 차이를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감

<Table 4> Correlation among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depression, suicide ideation (N=391)

Variables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Depression	Suicide ideation
	Father-adolescent	Mother-adolescent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1.00			
Depression	.690**	1.00	1.00	
Suicide ideation	-.255**	-.289**	.677**	1.00

**p<.01

<Table 5> Factors affecting suicide ideation (N=391)

Variables	β	t	p	R2	F	P
Depression	.668	16.169	.000	.447	261.437	.000*
Mother-adolescent	-.137	-3.211	.001	.464	139.631	.000*

*p<.01

성적이고 정동장애가 많은 성(性)적 특성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로 생각되며 여러 선행연구(Hong, 1998; Woo, 1999; Hagh, 2001; Lee, 2005)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여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와 이들을 접하는 어른들은 평소 자살을 암시하는 여학생들 대화나 행동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자살을 미리 예측하고 이를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학년별로는 2학년이 1학년, 3학년에 비해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2학년의 경우 1학년과 달리 중학교 환경에 적응이 되어 있고 3학년에 비해서는 진로문제에 대한 연관성이 적으므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도 스트레스가 적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3학년은 우울과 자살생각의 정도도 가장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적, 진학문제 등으로 부모와의 갈등이나 개인적인 우울 발생요인이 다른 학년에 비해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종교와는 자살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종교를 가진 청소년이 종교를 가지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살생각이나 우울에 영향을 덜 받는다고 보고한 Lee(2003)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였다. 이는 스트레스가 많은 청소년에게 정신적인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는 종교적 각성과 참여를 촉진시키기에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연령이 낮은 중학생이고 인지적인 발달도 미숙하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라도 종교자체가 청소년의 신념체계에 미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친구수와 관련한 자살생각은 2명 이하의 친구를 가진 집단에서 자살생각이 높게 나타났는데 Kim(2004)의 연구에서는 5명 미만의 친구를 가진 집단이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기에는 또래의 영향력이 여러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므로 또래와의 빈번한 관계는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므로 청소년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때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성 친구의 유무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학교성적이 하위권일수록 우울과 자살생각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Hagh(2001)는 중학생이 자살하고 싶은 상황이 공부로 인한 부담을 느낄 때로 보고했고 Hwang(2003)도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살생각과 연관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성적에 대한 압박감이 청소년의 삶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과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성적비판 등으로 인한 자살 사건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생활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과 우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학교생활에 불만족할수록 어머니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하며 우울 정도가 높았다. 이것은 청소년이 학교생활이나 친구관계로 인한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나 감정을 어머니에

게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감정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학생들의 취미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자신의 고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담소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부모동거형태에서 친부계모의 경우 편부, 양부모의 경우보다 우울, 자살생각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Hwang(2003)은 가정 요인과 관련하여 가족의 지지가 클수록 자살생각이 감소한다고 보고한 바와 같이 부모와의 동거가 중요하며, 부모의 형태면에서도 자녀에게 미치는 친어머니의 영향이 중요하게 나온 결과는 Lee(2005)의 연구와도 일치하므로 가정 내의 어머니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자들은 부모님과 하루 대화시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간은 50분 이상,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은 30분 이상일수록 개방적 의사소통을 했으며 우울은 30분 이하에서 증가하였다. 또, 자살생각은 50분 이하의 시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대화시간이 적을수록 문제행동이 많아진다는 Rho(2002)의 연구에서와 같이 부모 자녀가 30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대화한다면 대화를 통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자녀들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 자살생각에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나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일수록 청소년의 자살 생각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Woo(1999)의 연구와 조금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중학생으로 중학생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고등학생에 비해 정서적으로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학교라는 환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우울은 자살생각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우울이 감소할수록 자살생각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Hong, 1998; Chun, 2001; Lee, 2002; Seo, 2005)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우울과 모-자녀 의사소통의 두 변수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46.4%로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는 우울 감소를 위한 상담과 적극적인 프로그램의 수행 및 사회 전반에 걸쳐 청소년을 위한 사회 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며 특히 어머니의 역할비중이 높으므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모교육훈련을 병행한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Barnes와 Olson(1982)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이거나 가족의 결속력과 응집력이 떨어지면 이로 인하여 가정문제를 유발시켜 자녀의 자살생각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1차적 예방으로서 가정에서 청소년들에게 독립된 인격체로서 이들의 사고를 존중해 주고 도와주는 노력이 필요하며, 일방적이고 통제적인 자녀교육방식에서 탈피하여 건강한 가정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통합적 가족프로그램이 필요하

다고 하겠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 때 청소년 초기에 자살생각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자살생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부모-자녀 간에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상담이나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적용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차적으로 가정 내에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상담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우울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상관성 조사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서울 시내 소재의 1개 중학교와 서울 근교 소재의 1개 중학교의 남녀학생 397명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06년도 2월 9일부터 2006년도 2월 14일에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와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다중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아버지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평균은 61.70점이었고, 어머니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평균은 64.04점이었다. 우울은 평균은 16.01로 하부영역 중 흥미상실이 4.71로 가장 높았으며 행동장애 3.83, 우울정서 2.80, 자기혐오 2.44, 생리적 증상 2.23순이었다. 자살생각의 평균은 8.69였다.
-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부-자녀 의사소통의 차이분석에서는 학년별로 2학년이(F=3.241, p<.05) 1, 3학년보다, 경제상태가 상위집단일수록(F=5.060, p<.01), 아버지가 직업이 있는 경우(F=4.296, p<.05), 부모님과 대화시간이 길수록(F=15.120, p<.01) 부-자녀 의사소통이 높았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모-자녀 의사소통의 차이분석에서는 학년별로 2학년이(F=3.137, p<.05) 1, 3학년 보다, 학교생활을 만족할수록(F=5.072, p<.01), 경제상태가 상위집단일수록(F=4.599, p<.05) 아버지가 직업이 있는 경우(F=5.603, p<.01), 부모님과 대화시간이 길수록(F=13.548, p<.01) 모-자녀 의사소통이 높았다. 우울과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F=6.784, p<.01) 성적이 낮을수록(F=4.570, p<.01),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할수록(F=8.166, p<.01), 경제상태가 하위집단일수록(F=5.867, p<.01) 우울이 높았다. 동거형태에서는 부모님 모두 함께 동거하는 집단이

(F=2.997, p<.05), 그리고 부모님과 대화시간이 길수록(F=4.765, p<.01) 우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과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t=-2.053$, p<.05)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이 높을수록(F=10.475, p<.01), 친구가 적을수록(F=2.686, p<.05), 성적이 낮을수록(F=11.130, p<.01), 경제상태가 하위집단일수록(F=3.748, p<.05)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 동거여부에서는 친부제모인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F=3.892, p<.01) 자살생각이 월등히 높았고, 아버지가 직업이 없는 경우(F=6.634, p<.01), 부모님과 대화시간이 짧을수록(F=7.482, p<.01)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모-자녀 의사소통($r=-.320$, p<.01)과 부-자녀 의사소통($r=-.292$, p<.01)은 자살생각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r=.677$, p<.01)은 자살생각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으로 확인한 결과 모-자녀 의사소통과 우울이 자살생각에 46.4%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훈련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 우울 예방 및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적용이 필요하다.

References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revis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Barnes, H.,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cales*. In D. H. Olson, H. I. MaCubbin, H. Barnes, A. Larsen, M. Muxen, & M. Wilson, Family Inventories. St. Paul, MN: University of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
- Beck, A. T., Kovacs, M., & Weissman, A. (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 Consult Clin Psychol*, 2, 343-352.
- Blumenthal, S. J., & Kupfer, D. J. (1990). Overview of early detection and treatment strategies for suicidal behavior in young people. *J Youth Adolesc*, 17, 1-23.
- Chang, M. S. (1999). *Relation between the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 Chun, Y. J. (2001). Path model for the family and school environment affecting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mediated by depression.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 155, 151-167.
- Chung, H. K., Ahn, O. H., & Kim, K. H. (2003). Predicting factors on youth suicide impulse. *Korean J Youth Studies*, 10(2), 107-126.
- Hagh, Y. H. (2001). *A study on actual condition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suicidal ide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Han, Y. J. (1993). *Children's and adolescents' depression, attributional style and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Hong, N. M. (1998). *A study on the psychosocial factors influencing the suicide ideation among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Hwang, Y. S. (2003).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s-focusing on the home & school environ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 Jeong, G. S. (2005). *An analysis of the factors determining juveniles' suicidal thought*.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Kim, H. S. (2006). The current trend of suicide and its prevention in life stages-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elderly and youth suicide. *J Welfare Aged*, 34, 271-292.
- Kim, Y. A. (2004). *Influencing variables on suicidal risks of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KNSO. (2006). Annual report on the cause of death statistics. Retrieved from the NSO web site: <http://www.nso.go.kr>
-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2005). *Adolescent suicide: Prevention and Counseling*. Seoul;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 Kovacs, M. (1981). Rating scales to asses depression in school aged children. *Acta Paedopsychiatr*, 46, 305-315.
- Lee, E. S. (2002). *Construction of structural model about adolescent's alienation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Seoul.
- Lee, J. S. (2003). *The influences of melancholia and self-identity of youths on the contemplated suicide of youth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 Lee, K. S. (2005). *The research of the effectiveness of youth suicide thought by parent-children communication and mental st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ju University, Jeonju.
- Min, H. Y. (1990). *Circumplex model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Olson, D. H., Sprenkle, D. H., & Russell, C. S. (1982).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VI. Theoretical update. *Fam Process*, 22, 6-83.
- Park K. B., & Shin, M. S. (1990). College goal and suicidal ide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 Clinl Psychol*, 9(1), 20-32.
- Rho, J. H. (2002).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 Seo, M. S. (2005). *A study on psychological and social factors affecting suicide ideation among youth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Masan.
- White, J. L. (1989). *The troubled adolescent*. New York: Pergamon Press.
- Woo, S. Y. (1999). *The study on the variables of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